

천방지축 괴짜라고 해도 이런 내가 좋아! 자존감을 채워주는 이야기 동시책



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들어

박혜선 시 | 정수현 그림



★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작★

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숙제를 미루다가 혼나기도 해요.
엄마는 이런 나를 사고몽치라 생각하고, 동생은 알쏭달쏭하다고 합니다.
하지만 나는 이런 내가 싫지 않아요. 공부를 좀 못해도 인사는 잘하거든요.
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를 잘 알거든요.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말이에요.

그러니까 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들어요!

네이버 검색창에 '천개의바람'을 검색하세요.

블로그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전화 02-6953-5243 | 팩스 031-622-9413 | 인스타그램 @athousandhope





책을 읽기 전에

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?



● 표지 속 인물들의 표정은 어떤가요?

●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, 주인공은 어떤 아이일지 상상해 보세요.



내용을 확인해요

동시를 읽고 생각 키우기

<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들어>에는 주인공 강지유의 감정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어요. 동시에 담긴 강지유의 마음을 엿보고, 느낀 점을 정리해 보세요.



어떤 꽃이 필까?

강지유!
강지유!
강지유!
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
후! 불어
창밖으로 날려 보낸다

봄 되면 창밖 화단
여기저기 싹이 나겠지

● 동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

● 내 이름을 날려 보내면 어떤 꽃이 필까요? 그림을 그리고 꽃에 이름을 붙여 보세요.

청개구리 마음

혼이 나도 실실 웃는 나는
바보 같은 나는
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올까?
“재, 원래 그래.”
그 말에 쿵!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는데
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크게 떠들고 있을까?

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…….



- '청개구리 마음'은 어떤 뜻일까요?

- 울고 있는 강지유에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보세요.



책을 읽고 난 뒤

1. 나는 어떤 사람일까?

책 속 강지유는 자신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. 당차게 "나는 내가 꽤 마음에 들어."라고 외칠 만큼요. 나에게 '나'는 어떤 존재인가요? '나'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.

- 언제 내 스스로가 참 멋있다고 느껴지나요? 그 이유는요?

- 나의 장점을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.

- 나는 '나'를 어떻게 생각하나요?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.

2. '나'를 동시에 표현해요

'나'를 주제로 하는 동시를 지어 보세요. 스스로가 멋지게 느껴지는 순간, 장점, 나에게 하고 싶은 말, 별명 등 어떤 내용이든 좋아요. 내가 생각하는 '나'를 표현해 보세요.

